



몬텔레즈 노동자 뉴스



전국화학성유산업노동조합
동서식품지회

2017년 3월

IUF 한국사무국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2층 (우)150-070 · 전화/팩스 02-465-0965

몬텔레즈 인터내셔널과 JDE

2012년 크래프트 사가 크래프트 푸드와 몬텔레즈 인터내셔널(이하, 몬텔레즈) 두 개 기업으로 나뉘었다. 이후, 2015년 크래프트 푸드는 브라질계 사모펀드 3G 캐피탈이 주요 주주로 있는 하인즈사와 합병을, **몬텔레즈는** 스낵사업에 집중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의 커피사업을 분리**, 네덜란드 대표 커피 브랜드이자 독일계 사모펀드 JAB 홀딩스 소유인 **DE 마스터즈 블랜더즈(Masters Blenders) 1753**(이하, DEMB 1753) **사와의 합병**을 각각 추진함.

두 개 기업이 소유한 커피 브랜드의 유럽 국가 내 독과점 관련 규제 심사 및 승인을 거친 뒤, 2015년 7월 독립 커피 법인 JDE(야콥스 다우어 에그베르츠; Jacobs Douwe Egberts)를 설립함. JDE는 두 개 기업의 대표 커피 브랜드에서 따옴.



신설법인의 지분은 Acorn 홀딩스(JAB 홀딩스의 자회사)가 56%를, 몬텔레즈가 44%를 각각 소유함.

합병 발표 당시, 몬텔레즈가 자사의 글로벌 커피 사업 부문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49%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동서식품 지분만은 유지하게 되면서 JDE의 지분율이 44%로 조정된 것으로 보임.**

한편, 2015년 2월 몬텔레즈가 일본의 AGF의 지분 50%를 270억엔(당시 환율로 약 2700억원)에 합작투자사인 아지노모토에 전량 매각한 바 있음.

JDE 설립 이전, 몬텔레즈가 동서식품의 이익 배당금 및 상표권수수료를 받아왔다면, **JDE 설립 이후, 동서식품이 사용하는 상표권수수료는 JDE로, 이익배당금은 몬텔레즈가 수취하는 이중구조로 바뀐 것으로 보임.**

글로벌 커피 시장과 JDE

글로벌 커피 시장의 1위 기업은 네슬레로, 2015년 기준 네슬레의 매출은 약 22조원으로 추정(192억 프랑).

JDE를 56% 소유한 Acorn 홀딩스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스페셜티 커피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모지주회사로, 이 회사의 모기업인 JAB 홀딩스 또한 커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음.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는 JDE의 설립이 글로벌 부동의 1위 네슬레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

JDE는, DEMB 1753 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규 투자가 아닌 커피 관련 기존 기업이나 브랜드의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JDE의 바트 베흐트(Bart Becht) 회장은 인스턴트 커피의 비중을 높ی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11월 싱가포르 Super Group 지분 60%를 인수함. 이 회사는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15개 생산법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동남아 인스턴트 커피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1월에는 브라질 커피 회사 Cia Cacique 사로부터 커피 브랜드 Café Pele를 인수함. 이 브랜드는 전세계 50개국 진출,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동서식품의 미래는?

2015년 몬텔레즈와 DEMB 1753의 합병 발표와 동시에, **몬텔레즈는 '제로 베이스 예산집행(Zero Base Budgeting; 0을 기준으로 한 예산집행계획)을 통한 영업비용 감축 관련 추가 계획을 발표함.** 이 기법은 AB InBev(한국 오비맥주 모회사)에서 사모펀드 3G 캐피탈에 의해 도입된 것임.

(주)동서와 몬텔레즈는 동서식품의 공동 사업파트너로 기술/설비/연구/노동/고객만족 관련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동서식품을 현금인출기로 생각,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용 지출을 통제, **발달장애를 일으킬 것인가?** 회사의 확실한 계획과 대답을 들을 때다!



몬델레즈 회장 집 앞으로 항의 행진



2016년 9월 20-21일 미국 시카고에서 몬델레즈 노동자를 대표하는 IUF 가맹조직들이 만나, 노동조합 간 교류 및 노동조합 활동 강화를 결의함. 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은 21일 오후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몬델레즈 아이란 로젠펠드 회장 자택까지

행진 후 회사측의 좋은 일자리 파괴 등 구조조정 계획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함. 몬델레즈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시카고 나비스코 공장에서는 6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서는 22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함.

몬델레즈 유럽 본사 앞 항의 시위



2016년 11월 23일, IUF 가맹의 13개 국가 노동조합들이 몬델레즈 유럽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고 투기자본식 경영이 아닌, 지금의 회사를 일군 시설설비-공장, 브랜드, 기술과 경험을 보호하고 지켜낼 것을 촉구함.

뉴질랜드 몬델레즈 노동자 공장 사수 투쟁

2017년 2월 15일 몬델레즈가 뉴질랜드 두넨딘 소재 캐드버리 공장 폐쇄 및 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4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함. 이 공장은 지역의 역사와 함께 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으로 이곳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IUF 가맹의 E tu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그 가족,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3월 11일 회사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짐.



IUF 몬델레즈 노동자 국제행동주간

IUF 가맹조직들은 몬델레즈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이러한 계획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을 모색, 확대하기로 함.

이에, 3월 27-31일 한 주간 '수치스런 몬델레즈'라는 기초 하에 국제행동주간을 갖기로 결의함. 이번 행동주간을 통해, 노동조합이 선제적으로 해당 경영진에 좋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에 항의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사업장, 다중이용장소, 온라인 등에서 전개하기로 함.

IUF Mondelez affiliates demand:

- INVESTMENT in the future of the company, its brands and workforce
- An END to the financial short-termism which is driving the destruction of quality permanent jobs at Mondelez
- NEGOTIATIONS around all restructuring actions with affected unions
- Strict adhere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LABOUR STANDARDS at Mondelez

www.iuf.org

몬델레즈 노동자의 요구

- 기업과 자사브랜드, 노동력의 미래를 위한 투자
- 좋은 일자리 파괴하는 투기자본식 단기이윤추구 중단
- 구조조정 계획 및 행위 관련 해당 노조와의 교섭
-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의 엄격한 준수

Ruesch & Pösch-Rösch,
8, CH-1213, Petit-Lancy
(Switzerland)
Ph: + 41 22 793 22 33